

10월의 사슴 사양관리 포인트



김 상 우 연구사
축산기술연구소

◇ 월동용 조사료의 준비

10월까지의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사료작물과 산야초 및 관목류를 자가 채취하여 조사료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미리미리 월동용 조사료의 준비가 필요한 시기가 된다.

국내의 현실로 보면 초지를 이용하여 월동용 건초를 생산하는 농가수는 많지가 못하고 대부분 월동용 조사료로 수입 갈잎을 이용하고 있다. 사슴의 소화생리상으로 보면 3위가 작아서 수분이 많은 조사료에 대한 기호성이 떨어지지만 가능하면 옥수수 등을 이용한 사일리지의 조제도 앞으로는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한겨울 급여한 사일레지가 얼어서 설사 등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 소량씩 급여횟수를 늘려 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농가도 있다. 사슴이 아무리 관목류에 대한 기호성이 좋을지라도 월동용 조사료원으로 갈잎 한가지만을 확보하는 것 보다는 알팔파 건초 등 여러가지를 확보해두는 것이 사슴의 사양관리에 유리한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며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이다. 또 일부 남부지방의 농가에서는 벼 후작으로 이탈리아라이그라스를 파종하여 봄철에 이용할 수 있으며 중부 이북지방은 이탈리아라이그라스의 월동이 곤란하므로 호맥을 재배하여 봄철에 급여하는 것이 좋겠다. 조사료를 100% 수입에만 의존한다면 우리의 양육경쟁력은 갈수록 악화될 것이므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할 것이다.



▲ 옥수수 등을 이용한 사일리지 제조도 월동용 조사료 준비의 한 부분



월동용 사료의 준비는 봄철 청초 급여 개시 시기까지의 일수를 계산한 후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두수를 계산하여 산출하며 성록을 기준으로 엘크와 레드디어는 조사료와 농후사료를 합하여 겨울동안은 체중의 2% 정도를 섭취하며 꽃사슴의 경우는 2.3% 정도를 섭취하므로 조·농 비율을 생각하여 조사료원을 확보하면 되겠다.

◇ 번식계절 동안의 사양관리

번식계절 동안에는 합당한 사슴의 발정과 교미일자를 관찰하여 기록하는 것도 이 시기의 주요한 관리사항이다. 일반적으로 꽃사슴과 엘크는 발정주기가 21일이고 레드디어는 19일 정도로 발정이 오고난 후 다음 20일을 전후하여 세심한 관찰을 실시한다.

발정이 오지 않으면 임신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발정이 오는 것은 번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번식장애의 치료를 해주든지 아니면 비육을 시켜 녹중탕용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아야 하겠다. 또 수사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예비 종록으로 수컷을 교체해 주는 것도 이시기의 관리가 되겠다.

합리적인 사양관리의 시작은 조그만 것부터의 기록에서 시작이되므로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이런 관찰 기록은 분만예정일의 산출과 다음해 사양관리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가 있다.



▲ 발정이 오지 않으면 임신으로 간주, 발정이 오는 것은 번식장애로 적절한 조치가 요망된다

◇ 기타 일반관리

번식계절 동안에는 사슴들이 철망을 부수고 투쟁을 하므로 안전사고의 예방 차원에서 철망의 보수 및 월동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실시한다.

중부 북부지방의 경우는 한겨울 동안 수도관이 얼어 급수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점검을 실시하여 수도관을 깊게 묻든지 전기시설을 이용한 급수 관리체계도 미리 점검을 해두면 겨울 동안 급수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력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유한 자록의 경우는 마취를 하여서라도 이표를 달아주어 장차 종록선발 및 개체 관리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겠으며 마취시 마취약 량에 대한 기록도 남겨둔다면 다음번 마취시 유용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국양목**